리더를 뽑는 일, 보살을 찾는 일

현불논단



금해 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과거에는 혈연이나 세습, 혹은 절대자의 권위에 의해 지도자가 결정됐다면 오늘날에는 이 사회나 임원회, 그리고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가운데 민주주의의 꽃인 직접선거는 평범한 국민에게 가장 강력한 힘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선거는 '개인의 결정'과 '공동체의 결정'이 만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투표소 안에서 이뤄지는 선택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그 선택들이 만들어낸 결과는 '공동체의 결정'이라는 무게를 지닌다. 따라서 작은 오류 하나도 지나칠 수 없고, 선거가 끝났음에도 쉽게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올해 6·3선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거의 결과는 끝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어야 한다. 개인과 사회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화합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선거 과정에서의 치열한 대립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결과의 승패, 옳고 그름을 떠나 다수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에는 큰 용단이 필요하다.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민주주의의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지속성을 위해 용단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 중요한 선거를 앞둔 불교계로서는 이 모든 과정이 큰 울림이요, 가르침이다.

부처님 당시, 데바닷타는 교단의 지도자 자리를 승계하고자 하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논리

선거는 끝 아닌 공동체 위한 새 출발점
데바닷타 일화, 갈등 포용 리더십 제시
공동체 위해 헌신할 불교 리더 선출되길

와 언변, 수행력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제자였으며, 교단의 확장을 위해 여러 방법을 제시할 정도로 뛰어난 행정력과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왕족 출신으로 부처님과는 사촌지간이라는 배경까지 있었으니, 그의 요구는 스스로에게도, 일부 대중에게도 지극히 정당하게 보였을 것이다.

데바닷타는 부처님께 은퇴를 권유하며 자신이 교단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붓다의 자리가 인위적으로 세습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명확히 하며 거절하셨다. 이에 반발한 데바닷타는 교단을 분열시키고 부처님을 해치려는 악업을 짓고 지옥에 떨어지는 파멸에 이르렀다.

이 일화는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개인과 공동체에 얼마나 깊은 상처와 파탄을 가져오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동시에 리더와 대중이 어떻게 고통과 갈등을 포용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처님께서 데바닷타에게 미래에 붓다가 되리라는 수기를 내리셨다는 사실이다.

진짜 리더의 힘은 선거 승패에 상관없이 드러난다. 구성원의 선택을 존중하는 겸허함, 결과를 수용하는 책임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의 제시,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는 지혜, 공감하는 인류애 등이 리더가 지녀야 할 덕목이다.

불교계의 리더는 '붓다'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자라는 사실이 바탕을 이룬다. 리더는 '부처님과 보살'처럼, 대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는 존재여야 한다. 중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며 그것을 스스로 돌아보는 수행으로 삼는 존재이다. 우리 구성원들은 그러한 리더를 존경하고 의지하며 닮아가고 계승하게 될 것이다. 올해 불교계 선거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행자, 대중을 품을 보살을 찾는 기쁨의 시간이기를 발원한다.

하루살이와 인스턴트 카르마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참으로 오랜만에 장편 소설을 완독했다. 〈달라이 라마의 고양이〉 시리즈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작가 데이비드 미치(David Michie)의 명상 소설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미국에서 전법 활동하는 티베트 출신의 타시 스님으로, 내가 뿌린 카르마(업)의 씨앗이 즉시 열매를 맺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이는 자비심의 나비 효과를 보여주는 유쾌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필자가 이 소설에 관심을 가진 것은 윤회와 업 사상을 불교 윤리의 핵심 테마로 보기 때문이다. 불교의 초기 경전에서부터 대승 경전에 이르기까지 윤회와 업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윤회와 카르마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보는 방식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 윤회와 업에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실천을 위한 동기화를 유지하는 토대가 된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카르마는 윤회의 핵심 동력이다. 불교는 운명론적인 업 관념을 비판하면서 현재 내가 어떤 선택을 하여 선한 업을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업에는 자신이 행한 행위의 인과응보를 개인이 받는 개인업과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받는 공업(共業)이 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카르마, 즉 업을 전생-현생-내생의 순환과정의 틀에서 보는 것에 익숙하

교통수단·통신 발달로 지구촌 급변
환경 파괴·기후 변화 등 공업 급증
지금 여기서 보리심으로 선업 짓길

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지옥이 무섭지 않냐?"라는 말은 나이 든 사람들의 한탄과 질책에 자주 등장한다. 필자가 소설 〈인스턴트 카르마〉에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지금 여기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업보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삶의 현장에서 즉각 응보의 사례는 많을 것이나 이를 카르마의 작용으로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정직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잘사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오늘의 지구촌은 백여 년 전에는 상상도 못 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근대화 이전의 백 년은 지금의 일 년과 비교되기도 한다. 다양한 교통수단과 통신의 발달은 지구촌 사람들을 한 그릇에 담는 뷔페 음식 같은 삶의 양식에 살게 만들었다. 카르마적 사유는 농경시대의 배경에서 출발하였고 그 작용도 느리고 순환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업의 작동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구성원이 함께 짓는 공업의 모습도 환경 파괴, 기후 변화, 괴질 만연 등 다양하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급격한 변화와 어지러운 회전목마를 탄 현존 인간은 어떤 면에서 매일매일 윤회하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카르마, 즉 업이 춤추는 마당은 바로 '여기 지금'이다. 윤회와 업의 윤리적 역할도 지금 여기에서 체감 있게 다가올 것이다. 자비의 윤리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지혜로운 이기심'에서 출발한다. 지금 당장 선한 업을 짓고 그 업보로 지금 여기서 행복하고 멋지게 사는 삶을 그려 본다. 하루살이의 지혜가 바로 보리심(菩提心)이다.

社 說

서울시의회의 입법 폭거

서울시의회가 끝내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본분을 저버렸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임기를 불과 6일 남겨둔 6월 24일,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2건을 기습 상정해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정교분리 원칙 훼손과 특정 종교 특혜 논란으로 이미 한 차례 철회·폐기됐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특별위원회안으로 둔갑시켜 강행 처리한 것은 정당한 비판과 감시를 피하려는 의도적인 입법 폭거다. 이 과정에서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수개월 동안 제기해 온 '헌법 가치 훼손' 지적은 철저히 외면됐다.

세계청년대회는 교황이 주재하는 미사와 신앙 집회, 선교 프로그램이 핵심인 명백한 가톨릭교회의 종교 행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는 특정 종교 행사의 명칭을 그대로 담은 조례를 제정해 행정과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더욱이 이미 국제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 조례를 만든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공공 재원의 종교적 사유화를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선례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 가결
정교분리 · 공교육 중립성 훼손 우려 확산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공교육 자원의 동원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원 조례안'은 서울시 120여 개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과 급식·위생시설을 숙박과 행사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이는 학교를 선교의 장으로 전락시켜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다. 방학 기간이라 해도 돌봄과 방과후 활동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욱이 학교시설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설 훼손 시 복구 비용까지 교육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교육재정의 목적 외 사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처럼 무리한 입법이 급물살을 탄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발언이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교황을 면담한 자리에서 세계청년대회에 "우리 정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종교 간 형평성과 여론을 외면한 채 특정 종교 행사를 국가 차원으로 격상시킨 대통령의 발언이 이번 조례 강행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유사한 지원 논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불교계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하고 연등회까지 끌어들여 '물타기'를 시도한 시의회 일각의 궤변은 문화와 역사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불교계는 이번 조례안 가결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각 종단을 중심으로 예산 집행과 행정 지원의 위법성을 끝까지 감시할 것이며, 헌법 가치와 공교육의 중립성 훼손 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특정 종교에 대한 공적 특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서울시의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원칙의 무게를 다시 새겨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7월 1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7월 1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7월 1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대원사
- 주 지 : 수남 (속명 : 이동걸)
- 주 소 : 양산시 하북면 진목로46 2층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대한선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법하